

#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무사고 기록 목표 ... “생명 구해주고 보상받는 것은 용납 못해”

## 화진포해변 수상인명구조대 박광근 대장

“지난해에는 인명사고가 하나 없었는데, 올해도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무사고 해변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성지역 최고의 해변으로 손꼽히는 화진포해변에서 물놀이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수상인명구조대 박광근 대장(35세, 사진)은 올해도 인명사고가 없는 해변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화진포해변은 박대장을 비롯한 10명의 인명구조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4시간 대기하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물놀이사고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대장은 6년간 인명구조대원으로 활동한 베테랑으로, 지난해부터 화진포해변 인명구조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대장은 “다년간의 구조대 활동을 통해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다”며 “구조대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2년 7월말 아이 4명이 탄 대형고무보트가 바람에 떠밀려가는 것을 가족 3명과 함께 구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당시 앞쪽에서 보트를 끌고 물살을 갈라 어렵게 구조하고 나서 온몸이 마비가 돼 의식을 잃기도 했다.

또 2001년에는 안전관리선을 넘어 떠내려가는 아이를 구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3대 독자여서 가족들이 사례로 현금 20만원을 건넸으나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박대장은 “구조대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뿐인데, 생명을 구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화진포해변에서 활동하는 모든 구조대원들이 나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대장은 “인명구조 보트 등 장비가 노후돼 파도가 강할 때는 기동력이 떨어져 신속한 구조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지역 후배들 가운데 민간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춘천 등지에서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불편하다”며 “고성에서 출장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 봉포해변 익수자 구조 이정구씨(고성군청)

### 불의보면 못참는 ‘정의의 사나이’

“높은 파도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들었어요.”

고성군 고객봉사과 주택건축팀 7급공무원 이정구씨(40세, 사진)가 지난 16일 오후 토성면 봉포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안전관리선 근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개를 캐서 물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위에서 사람이 빠졌다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씨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살피다 안전관리선에서 힘겹게 팔을 걸치고 높은 파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옆에 있던 튜브를 빌려 물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익수자 근처에 도착해 익수자의 팔을 튜브에 걸치게 한 뒤 익수자를 물밖으로 이끌고 나왔지요.”

이씨는 “2~3m 파도 속에서 안전관리선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며 구조요청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뛰어 들었다”며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씨의 이같은 신속한 행동으로 익수자는



다행히 생명이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씨는 생명이 지장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난 후 가족에게 인계하고 곧바로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씨의 이런 용감한 행동은 현장에 있던 지역주민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본지에는 김태극 시민기자가 전화로 직접 소식을 전해왔다.

그런데 이씨가 해변에서 익수자를 구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초반 화진포해변에서 고등학생 1명을 구조했고, 20대 중반에는 초도해변에서 아이들 3명을 구조하는 등 이번까지 총 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이씨가 이처럼 익수자 구조에 남다른 활동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어릴 적 바닷가에서 자라 물을 자주 접한 탓으로 수영실력이 좋은 편이고, 별명이 ‘정의의 사나이’로 불릴 만큼 의협심과 희생정신이 남다른 때문이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평범한 공무원인 그는 오늘도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며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최혜경 센터장

### 가정 관련 전문복지 발전 노력

“고성군은 한부모를 둔 자녀들이 많고 조손자녀들도 많아요. 이들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1일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간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최혜경 센터장(52세, 사진)은 “고성지역에는 그동안 전문화된 상담소가 없었다”며 “앞으로 가정과 관련된 전문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고성지역지활센터에 1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어 고성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족유지 및 사회발전 저해현상이 발생하고 이혼과 실직 등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어 이들에게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정보제공, 건전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가족과 관련한 제반 프로그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군민들의 가족건강성 증진과 행복한 가정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언제든지 센터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속초YWCA 사무총장 및 YWCA햇살의 집 원장을 역임했으며, 고성지역지활센터에서 1년간 근무했다. 가족은 남편인 이열호씨(55세, 교사)와 1남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박승근 기자

